미 공군이 5세대 전투기 F-22 '랩터'의 성능 개량을 위해 록히드마틴을 계약업체로 현대화 사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과 계약금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는 신형 P-750B 소형 공격잠수함과 무인기용 소형 공중발사 폭탄을 공개했다. 중국은 최근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에서 8번째 Type 055 구축함과 25번째 Type 052D 구축함을 진수했다.

윤병노 기자

미 공군의 F-22 전투기 랩터.
출처=janes.com

미국 공군, F-22 전투기 ARES 현대화 계획 착수

지속유지 등 효율성 개선 록히드마틴과 계약 체결

미 공군이 ARES(Advanced Raptor Enhancement and Sustainment) 사업으로 불리는 록히드마틴의 F-22 전투기 '랩터' 현대화 계획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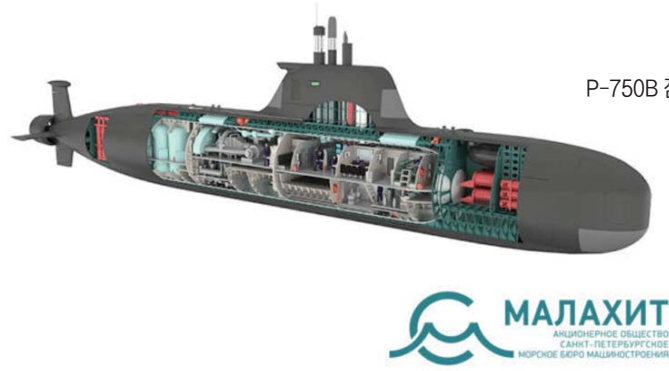
미 정부조달 웹사이트(beta.sam.gov)에 게재된 사전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미 공군은 5세대 전투기 F-22 랩터의 성능 개량을 위해 록히드마틴을 계약업체로 현대화 사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안된 계약은 REDI Ⅱ(Raptor Enhancement, Development, and Integration Ⅱ) 계약의 후속 사업으로 현대화 요구, 관리, 지속유지 소요를 충족시켜 F-22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할 전망이다. 2021년 6월까지 납기·수량 불확정(ID·IQ)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며, 그 기간에 한 차례 옵션 기간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 공군은 ARES 사업의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 및 계약금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F-22 랩터 전투기는 맞춤식으로 제작된 무기 패키지를 탑재할 수 있다. 공중전투작전용 무장으로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AMRAAM), AIM-9M·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내부에 탑재한다. 공대지 패키지로는 합동직격탄(JDAM), AIM-120, AIM-9 등을 장착한다. 장거리 공중전투 무장으로는 AIM-120 및 AIM-9 등을 내부에 탑재한다. 한 쌍의 외부 연료탱크와 함께 날개 하부에 공대공 유도탄 4발을 추가 장착할 수 있다. 또 소형 활공 정밀유도폭탄 GBU-39, M61A2 20㎜ 기관포를 장착한다. AN/APG-77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공대공 탐색은 물론 다수의 표적을 정밀 추적할 수 있다.

F-22 전투기는 8000시간을 비행하도록 설계됐으며, 현대화 지원을 받아 2050년대 초반까지 운용될 예정이다. 미 공군은 180여 대의 F-22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P-750B 소형 공격잠수함 공개

250마력 전기추진모터·450㎾ 출력 가스터빈 구비



P-750B 잠수함 모형.
출처=navalnews.com

러시아는 최근 말라키트사(社)가 설계한 P-750B 소형 공격잠수함 모형을 공개했다. 배수량이 1400톤인 이 잠수함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00 마력의 전기추진모터(배터리를 이용해 3일 동안 수중항해 가능)와 각각 450㎾의 출력을 가진 한 쌍의 디젤 가스터빈을 구비했다. 이 엔진을 사용해 10~12노트로 항해할 수 있다.

가스터빈은 2개의 방식으로 운용된다. 첫 번째는 수상 운용, 두 번째는 잠항(潛航·잠수함이 수중에서 항해하는 것)을 위한 것이다. 발전기는 수상 운용할 때 대기권의 공기를 사용하며, 잠항 땐 듀어 용기에 극저온으로 저장된 액체 산소를 사용한다. 극저온 액체 산소가 배기가스를 동결시키기 때문에 대기권으로 배기가스를 내보낼 필요가 없다. 최대 300m 심도에서 4노트의 경제적 속도로 1200마일을 항해할 수 있다.

러시아 UAV용 소형 공중발사 폭탄 공개

신형 미사일·폭탄 설계…기존 제품 개량 작업 중

러시아의 드론 전문업체인 JSC 크론시타트가 새로운 무인기(UAV)용 소형 공중발사 폭탄을 공개했다. 이 폭탄은 KTRV와 TsNIIKhM을 포함한 여러 업체가 공동 개발했다.

KTRV 보리스 오브노소프 사장은 "UAV용 신형 미사일과 폭탄을 설계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을 개량 중"이라며 "UAV 시장 진출을 위해 50~100㎏급 소형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UAV용 무기 개발을 위해 크론시타트, 수호이 설계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RV가 개발한 Kh-50 유도폭탄은 길이 1.8m, 직경 180㎜ 수준이다. 10~20㎏의 고폭탄을 탑재해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TsNIIKhM이 개발한 KB-20 유도폭탄은 길이 0.9m, 직경 130㎜다. 7㎏의 고폭탄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위성 수신기 및 레이저 유도장치를 장착했다.

UAV용 소형 공중발사 폭탄. 출처=janes.com

25번째 Type 052D 구축함(왼쪽)과 8번째 Type 055 구축함. 출처=navyrecognition.com

중국 8번째 Type 055 구축함 진수

근접방어체계 장착하고 대탄도미사일 작전 운용

중국은 최근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에서 8번째 Type 055 구축함과 25번째 Type 052D 구축함을 진수했다. Type 055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1만2000톤, 전장 180m, 폭 20m 규모다. 전장 173m, 폭 17m인 미 해군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보다 크다.

Type 055급 구축함의 주요 무장은 함교 전방 64셀, 격납고 전방 48셀의 수직발사체계(VLS)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130㎜ 함포 1문과 두 종류의 근접방어체계(CIWS)도 장착한다. 중국 언론은 이 구축함을 대탄도미사일 작전에 운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추가로 중국이 30척 이상의 Type 052D 유도미사일 구축함 건조를 원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함정에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64셀의 수직발사체계를 포함한 무장과 각종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자료 제공=글로벌디펜스뉴스